



현대불교

우리문화재 ▶ 9면

hyunbulnews.com

안내 (02)2004-8200 구독 (02)2004-8212

참고 견디는 인욕이야말로 더 이상 죄업을 짓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행복을 선물할 수 있는 공양입니다.

조계종 前 포교원장 혜승 스님 ▶ 관련기사 5·20면



제861호 2011년 11월 9일 수요일 (음력 10월 14일 · 불기 2555년 · 주간)

861호 CONTENTS

- 종합 2
조계종 집행부 2주년 성과
조계종 중앙종회 188회 정기회의
봉암사 광산 개발 불의
- 특집 3
불교사회연구소 국민인식조사
- 혜승 스님 퇴임 법회 5
- 특집 7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



특집 12·13
라스 봉사현장



농인당당
농인당당의 침향전문점
침향갤러리
침향복합물 · 침향염주 · 침향선향
갤러리 02-738-6777 (조계사 앞편)
본사 02-3663-6777 www.nihwa.com



우리 마음도 푸르게 푸르게 11월 2일 양양 낙산사에서 열린 세계평화기원대법회에 앞서 (사진 왼쪽 앞부터) 일중한국제불교교류위원장 이토오 유이신 스님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자승 스님, 중국불교협회장 행인 스님이 기념식수를 하고 있다. 이날 스님들을 비롯한 한중일 불자들은 부처님 가르침을 인연으로 맺어진 황금유대를 재확인하며, 세계평화와 인류행복의 실현을 위해 수행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특히, 종단협의회 회장 자승 스님은 세계평화기원 대법회에서 "한중일 삼국 불자들은 인류와 사회를 바꾸는 진정한 힘은 선한 마음에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 혼자 누리기보다 함께 나누는 미덕, 폭력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세상의 어떤 재화도 생명보다 귀중한 것은 없다는 것, 선을 이기는 어떤 악도 없다는 것을 세상에 인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7면**
글=조동섭 기자 cetana@gmail.com, 사진=박재원 기자 wanihollo@hanmail.net

“히말라야 등반보다 어렵네요”

산악인 엄홍길씨 불교TV 토크쇼 진행
저명인사와 우리 이웃의 삶 전할 예정

“첫 녹화를 하는데, 고산증이 오는 것처럼 숨 쉬기가 어려웠습니다. 등에서 땀도 났습니다. 하지만 정상에 도전하던 초심으로 좋은 방송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산악인 엄홍길 씨(사진)가 불교TV의 새 토크쇼 ‘엄홍길의 챌린저 쇼 소나무’의 MC로 불자들을 찾는다. 엄 씨는 11월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카페 ‘나무’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방송 진행의 소감을 전했다. 불교TV는 현대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던 중 우리시대 도전의 아이콘인 엄홍길 씨를 MC로 결정했다. ‘엄홍길의 챌린저 쇼 소나무’는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 30분에 방송된다. 엄 씨는 방송 진행은 첫 도전이라 불교TV의 제안을 받고 망설였지만 프로그램 취지를 듣고는 이내 흔쾌히 허락했다.

엄홍길 씨는 “방송을 녹화하면서 출연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고 울컥하기도 했다. MC를 맡기를 잘 했구나 싶었다”고 말했다. ‘엄홍길의 챌린저 쇼 소나무’는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성공한 CEO, 스포츠 스타, 연예인 등이 출연해 자신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전하는 프로그램이다. 저명인사가 아니어도 폐지를 주위 장학금을 기부한 할머니나 길거리 노숙자를 도운 여대생, 장애를 딛고 판사가 된 고시생 등 자신의 인생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웃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다.

최근 산악인 박영석 대장과 신동민, 강기석 대원이 히말라야 안나 푸르나에서 실종돼 온 국민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다.

이에 대해 엄홍길 씨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이 편하지 않다. 사실이 아니고 그저 꿈이라고 믿고 싶다. 깊은 고통과 슬픔이 밀려온다. 하지만 이 일을 계기로 산악계가 위축되지 말고 박영석 대장과 신동민, 강기석 대원의 정신을 이어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산악인 엄홍길 씨가 방송을 진행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그가 산에서 내려와 본격적으로 방송가에 데뷔하는 것 인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엄 씨는 “언제든 기회가 되면 고산 등반에 다시 도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생활 수행으로 세상을 바꾸자

재가자 수행 프로그램 활성화
佛法 통한 자기 점검 계기

수능 시험이 다가오면 전국 각 사찰에서는 합격 발원 기도가 열린다. 수행생을 둔 부모들은 자녀들의 합격을 위해 부처님 앞에서 기도를 한다. 그러나 경쟁 사회에서 내 자녀가 합격하려면 누군가는 불합격해야 한다. 최근 불교사회연구소 조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불자들이 대다수는 절에서 열리는 종교 행사에 1~6회만 참가하고 있다. 복을 빌기 위해 불교 명절과 대형 행사가 있을 때만 참가하는 것이다.

이처럼 기록 신앙으로 변질되고 있는 불교 수행의 본래 의미를 회복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생활 속 수행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됐다.

불교사회연구소와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는 10월 31일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에서 ‘생활수행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불교시민사회 1차 대화마당을 마련했다.

이날 대화마당에는 재가 안거 수행 결사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결사와 정토회, 한마음 선원 등이 참석해 자신들의 재가 수행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결사 의장 만 초 스님은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추구하는 수행을 실천하려는 재가신도들이 있다. 그러나 그동안 실행활동은 이를 불교적 수행으로 담아내지 못하고 복을 기원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청정승가는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재가 안거 수행결사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청정승가의 재가안거 수행은 삼귀의로부터 시작돼 7보 선행을 실천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7보 선행은 하루 중 일정한 시간을 정하지 않고 선행을 실천하는 것이다. 기본수행과 선택수행을 마친 후에는 수행점검표에 결과를 기록하고 수행을 통한 변화를 남긴다. 재가 안거 수행목에는 자신의 수행을 약성하고 서원하는 수행약정서와 수행청구 등을 담아 재가자 스스로 수행을 점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정토회 법사단 교육팀장 묘수 법사는 정토행자 수행의 첫 번째 원칙이 스스로 ‘수행자’라는 인식을 자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묘수 법사는 “정토 수행자들은 매일 아침 서원의 기도로 하루를 연다. 매주 법회를 듣고, 수행의 관점을 잡고 법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한다. 정토구현 서원 실현을 위한 친일결사에 동참하며 정토세상을 이루기 위한 만일 결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토회에서는 백일기도를 하면 나 자신을 알게 되고, 천일기도를 하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만일 기도를 하면 내가 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토행자는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라는 의미다.

정토행자들은 청정승가 재가 수행과 마찬가지로 수행 일지를 작성한다. 기도하면서 떠오른 생각이나 마음의 상태를 기록해 자신의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다.

묘수 법사는 “내가 수행자임을 자각하고 그런 삶을 지향한다면 자신의 인생과 세상이 바뀌어 갈 것이다”고

말했다.

김용환 한마음 과학원 기획조정실장은 생활수행프로그램 개발의 기본 원칙에 대해 강조했다. 김 실장은 “우리가 있고 있는 것이 있다. 부처님이 출가하신 것은 결국 생활 속의 문제를 보신 것이다. 생활 수행은 고정된 틀이 있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마음선원에서는 생활수행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마음 공생 실천과정’을 만들었고, 이 프로그램은 공생의 도리를 체득하고 연구와 실천을 강조한다. 한마음공생실천과정은 이수한 초·중등 교사들은 ‘마음공부’를 실천할 수 있는 ‘한나무’ 인성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현재 전국 20여개 초·중등 학교에서 실시 중이다. 불교적 수행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보급되고 있는 것이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상임대표 퇴후 스님은 “그동안 불교는 절을 하고 참선을 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제대로 이끌어주지 못 했다. 대화마당을 통해 이런 문제들을 고민하는 자리가 됐다”고 평했다.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목동 국제선센터 개원 1주년 기념법회

11월 13일 오전 10시

템플스테이를 통한 한국불교문화세계화 전문도량 목동 국제선센터가 개원 1주년을 맞았다.

국제선센터(주지 현호)는 11월 15일 개원1주년을 기념해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3일 오전 10시 열리는 기념법회에서는 조계종 원로의원 월탄 스님이 법문한다. 또, 김장준비물 특판 등이 진행되는 자비나눔 장터와 전통가마, 다도시연 등 문화공연이 열린다. 오후 1시에는 범주 스님의 달마도 퍼포먼스도 선보인다. 이에 앞선 6~20일에는 범주 스님의 천년선화 달마도 특별전이 국제선센터 1·4층에서 전시된다. (02)2650-2214

조동섭 기자 cetana@gmail.com

신상품 LED인등·전구
탄력불교
031)792-6288 / 794-4055

불교계 사회적기업
창업아카데미 개설

교육과정 소개
불교계의 사회적기업 확산과 효과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교육을 초대합니다.

개강 : 2011년 11월 15일 저녁 6시 전법회관 B1

모집요강

| | |
|------|---|
| 교육기관 | 조계종 중앙인도회 (사)날마다좋은날 사회적기업 창업지원단 |
| 교육기간 | 2011년 11월 15일 ~ 2011년 12월 9일 주 2회 매주 화·금요일 (18시 30분 ~ 21시 30분) |
| 교육내용 | 사회적기업 설립, 경영 프로세스, 세무, 회계, 마케팅, 자본조달, 사회적기업과의 만남 등 |
| 교육장소 | 중앙인도회 전법회관 B1층 선운당 |
| 수강료 | 100,000원 |
| 정원 | 40명 |
| 계좌번호 | 농협 301-0020-5750-81 (사) 날마다 좋은날 |

*문의처 : TEL 02)733-7277 | pkbsk84@naver.com

www.everygoodday.org

도법 스님이 들려 주는 날마다 좋은 날 만드는 10가지 방법

**망설일 것 없네
당장 부처로 살게나**

아내에게 꽃을 바쳐 보세요
인생이 단박에 편안해집니다

3만 리를 걸으며 8만 명의 사람을 만나 깨달은 생활을 위한 지혜
조선, 한겨레, 동아, 오마이뉴스, 문화, 경향 등 언론사 집중 조영!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 (종교부문)

도법 스님 지음 | 280면 | 13,800원

진아眞我 만나기 워크북

**나를
치유하는
마음여행**

서양 지음 | 160면 | 12,000원

불교의 핵심교리인 **유식 30송**과 **현대심리학**을 토대로 개발한 **진아 만나기 프로그램 워크북**
경향, 내일신문 등 언론사 집중 조영!

www.bulkwang.co.kr | www.facebook.com/bulkwang